



신행수기

관세음보살의 가피력 <상> 김해인 (서울 노원구)

현대의학으로는 치유될 수 없다는 병. 그 병을 관세음보살의 가피력으로 생명을 구한 저의 외손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1989년 10월 하순경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외손자가 생후 6개월쯤 되었을 때입니다. 어린아이가 몸에 열이 나고 기침을 약하게 해서 간단한 감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그래서 집 가까이 있는 영동 세브란스 병원에서 진찰을 받고 며칠동안 통원치료를 받았으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통원 치료를 받은 지 닷새째 되는 날, 담당 의사가 "입원을 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 말대로 병원입원을 시키고 1주일 정도 지났으나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병은 점점 심해져서 의사선생님이 "이곳은 병원 시설과 장비가 열악하니 신촌에 있는 세브란스 병원 본원으로 가야하겠다"면서 소개서를 써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감기 정도의 대수롭지 않은 병으로 알았는데 더 큰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니 심상치 않은 병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동안 가족에게 알리지 않고 있던 딸애는 신촌병원으로 옮긴 후에야 전진집으로 연락을 해서 외손자가 아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연락을 받고 아내와 함께 병원에 가려고 하였으나, 아내의 수는 증폭으로

전신이 아파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터라 같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저 혼자 병원에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도착했더니 담당의사가 "심장에 물이 생겨 주사기로 물을 뽑아내고 투약을 했다"면서 경과를 말해주었습니다. 놀란 마음에 외손자를 바라봤지만, 녀석은 새근새근 잘도 자고 있었습니다. 온 가족이 모두 놀랐지만 눈을 감고 편안히 누워있는 손자를 보며 처차 회복되리라는 희망을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림 · 문병성

외손자의 갑작스런 입원... 관음기도 시작

아이의 외가인 우리 집 식구들은 신촌 세브란스 병원처럼 큰 병원으로 옮겨온 것이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매일 아침 <금강경> 독송과 관음 경문을 하고 낮에는 틈틈이 관음정경을 하는 한편 전화로 경과를 알아보고 했습니다.

신촌 세브란스 병원으로 옮겨 입원시킨 지 한 일주일쯤 되는 날 밤에로부터 연락이 오기를 "허파에서 물을 빼고 투약을 해도 처음에는 호파가 있었으나 며칠 뒤부터는 호파가 없고 의사 선생님이 '자기들이 가진 의학

지식으로는 더 치료방법이 없다'고 한다면 서 더 이상 입원실에는 들 수 없고 중환자실로 옮겨야 한다'며 울먹였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외손자는 이미 중환자실로 옮겨졌고, 중환자실 앞에 다른 중환자 보호자 10여명과 함께 사위와 딸애는 눈앞이 벌겍게 충혈된 채 주리고 앉아 시름에 잠겨 있었습니다.

저는 사위와 딸애에게 "사람의 목숨이란 천상천하에서 가장 귀중한 존재인데, 죽음이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니 걱정하지 말고 마음

을 굳게 가지라"고 우선 마음의 안정을 갖게 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이번에 새로운 것을 알게 됐습니다. 병원하면 아픈 환자들이 입원해서 치료를 받는 곳 정도로 알고 있었는데, 병원에는 일반 입원실·응급실·중환자실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일반 입원실은 통원 치료만으로는 치료할 수 없는 환자들을, 응급실은 교통사고 등으로 시각을 다투어 빨리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될 위급한 환자들을 수용했습니다. 중환자실은 치료해서도 회복될 기미가 거의 없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환자를 수용하는 입원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중환자실에는 환자 보호자를 비롯한 일체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어 환자의 상태가 어떤지조차도 전혀 알 수 없게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중환자실은 입원이 라기보다는 죽을 때까지 임시로 수용해 있는 수용소 같았고, 환자 가족들에게는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을 커녕 슬픔에 잠기게 하는 괴로움의 연속이라 하는 것이 타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생명을 구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서 집에 돌아와 아내와

"외손자 하나 없는 셈치자"고까지 얘기했습니다. 다음 날, 아기를 잃었을 때 딸이

발개 될 충격을 적게 하기 위해 아내가 딸애에게 전화로 아이 하나 없는 셈치라고 했더니 "엄마! 무슨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내 입장이 돼서 내 심정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리 말씀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전화에 대고 영영 울었다고 합니다.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 이야기를 아내로부터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아 아무 말 할 수 없는 심정이었습니다. 자식에 대한 모성애가 이렇게 강하다는 것을 처음 실감했습니다. (계속)

킬레이 수행일기



류상영 대한불교청년회부산지구회장

불교에 관심을 가진 것이 이십대 초반 무렵이었다. 산을 통해 서었다. 흔히 말할 것 없이 '산에 가면 절이 있다'라고 한다. 우연히 들른 산사에서 괴로운 삶의 해방구를 느꼈고, 절에 가고자 배낭을 꾸릴 정도로 산을 찾는 방식이 바뀌어 갔다. 그렇지만 그냥 산사에 가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단지 법당 참배나 인근에서의 명상이나 사색을 통해 얻은 정신적인 안정감 정도였다.

언제부턴가 부처님은 어떤 분인지 어떤 가르침을 주는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그냥 무뎠다고 부처님께 빌면, 지금 처한 현실에서 돌파구가 만들어질까, 부처님은 이처럼 어렵기만 한 삶이 나에게 주어지는 원인을 무어라고 가르칠까. 남들은 편안한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내 주변의 삶은 왜 이리 고달픈가. 이러한 의문들이 부처님을 찾게 된 근본적인 이유였던 것이다.

부사의 중심지인 광복동 저자거리에 있는 대각사, 평소 친하게 지내던 지인을 통해 이곳 청년회를 소개받게 됐다.

청년회 법회에서 교리 차곡차곡 배워 산사 찾아 다니며 '참나' 찾기 큰 경험

매주 여러 법사님들의 강의를 들으며 서서히 불교에 빠져들었다. 때때론 환희에 젖기도 했다. 경전을 배우면서 부처님의 말씀 속에 담겨진 진리의 세계를 엿볼 수 있었고, 사성제, 연기법, 업보설 등을 통해 깨닫지 못한 중생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나만의 일이 아님을 알았다. 여기 존재하고 모두의 문제임을, 더 나아가 그것은 바로 내가 해결해야 될 숙제라는 것도 깨달았다.

몇 년 간의 불교 공부에서 인생이 바뀌고 있었다. 그동안의 노력으로 이십대 중반을 넘어서면서 생활의 여건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불교가 한 인간의 사고를 바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불교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때부터 전국 명산에 있는 유수한 산사로 틈틈이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익히 들어 알 만한 여러 선지식을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다. 아마 스승을 바라보는 부족한 안목과 함

십의 화두로 자리잡았다. 주마등처럼 스치는 기억들은 영원히 망각 속에 묻어버리고픈 과거이지만 그 과거로 인해 체질되어진 삶이 '불에 달 귀지는 쇠처럼' 오랜 생을 뛰어왔던 수없는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어리석었던 탓으로 뒤늦게 깨달았다.

앞서 언급한대로 필자는 불교로 인해 바뀐 삶을 현재 살아가고 있다. 누구에게나 "나는 부처님을 만난 뒤에 마음을 행복할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한다. 내면세계의 치열함과 표면적인 여유로움을 공존시키면서, 오래된 내 중반을 넘어서면서 생활의 여건이 많이 향상되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점은 불교가 한 인간의 사고를 바꿔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았다는 사실이었다.

불교에 깊이 몰입하게 되면서 언제부터인가 출가에 대한 생각을 가지게 됐다. 이때부터 전국 명산에 있는 유수한 산사로 틈틈이 다니기 시작했다. 하지만 3년여의 시간을 보내면서 익히 들어 알 만한 여러 선지식을 만나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주저앉고 말았다. 아마 스승을 바라보는 부족한 안목과 함

신행수기 잘 쓰려면 ⑥

표현 감정에만 치우치면 '알맹이' 빠지게 돼

●문장과 표현

저 마음속 깊은 무의식 속에 잠겨진 억압, 분노, 패배, 눈물, 원망, 집착의 진실을 고해(告解)하듯 글로 써 내는 일만 큼 마음의 평화와 영혼의 정화(淨化)를 가져다주는 일도 드물다. 쏟아내는 글은 슬픔과 고통의 원형이며 정신의 통풍 작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수기'를 쓰는 일은 무엇보다 종교적으로 '죄' 사함 받듯 솔직하게 써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 충실해야 한다.

대체로 수기는 주관에 치우친 글이요, 서정적인 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감정에 치우칠 우려가 높다. 그런 글은 알

맹이가 없기 쉽다. 사람의 정서에 호소하는 것은 서정(抒情)이요, 서정적인 글이라고 하지만 정으로 글의 내용을 채우다 보면 전속한 글이 되고 만다. 그러므로 정情은 절제되어야 하고 겉으로 드러나지 않아야 귀한 것이 된다. 슬픔의 애상(哀傷)적인 미분은 그리 품위 있는 서정이 못 된다.

문장은 곧 그 사람이요, 문체(文體)란 바로 그 작가의 개성과 글수를 나타낸다. 실력이 없애 우리는 문장을 꾸미게 되고 재주를 앞세워 글의 품격을 떨어뜨리게 되고 만다. 차라리 서투르도 솔직하게 쓰는 편이 더 낫다.

첫째 문장은 간결해야 한다. 글은 짧고 뜻은 깊어야 함축

이 있고 여운이 남는다. 둘째 문장은 평이해야 한다. '외현 서명(義玄詞明)', 즉 속뜻은 깊어도 말은 알기 쉽다는 것이다. 아무리 심오한 내용이라도 쉽게 전달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을 잊지 말자. 셋째 글은 정밀해야 한다. 서사나 묘사에 있어서 모호한 표현을 써서는 안 된다. 넷째 솔직하게 써야 한다. 글에 수식이나 과장이나 변명이 필요없다. 체현된 진실을 거짓 없이 써야 한다.

맹안(자수필가, 예세이문학) 발행인

전문은 www.buddhanews.com에서 보세요

"승가건강비법 신비의효능"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네가 방안에 마가목 가지를 두기만 해도 수태를 한다는 신령한 나무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구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 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아서 (1달분 60봉, 보름분 30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삼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이 효능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로,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흰머리를 검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에게 좋다.

셋째, 중풍에 특효하며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 (콩팥)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호하고 보혈, 신기력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하다.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꿀벌이 든 여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 (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에도 좋다.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숙취를 해소한다.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실험사례" 페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원증대학교 보우국사 열반사지 소철산 왕망 수구암
전화번호 : (031) 585-1502 자수 대진 합장

현대인의 성인병

귀의 삼보하움고, 불자님 가정에 불보살님의 자비광명이 항상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현금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자유를 찾지 못하고 공해나, 환경오염, 밤낮이 뒤바뀐 생활, 불절제 등 각종 환경적 요인과 내적요인을 극복하지 못하고 많은 질환과 각종 알수없는 난치성 질환으로 시달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소송이 출가 이후 오래도록 수행에 정진해 오다가 개인의 지중한 인연으로 의학에 관심을 버릴수

가 없어 오랫동안 민속의학을 연구하였고 한의학을 전공 하였습니다.
후 그동안 인연있는 불자님들의 여러가지 질환을 치료해오고 있던중 本草學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오래전부터 전수된 난치성 질환에 대하여 여러가지 신묘한 치료법을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인연있는 많은 불자님과 환자분들의 성원으로 고통을 가지고 있는 질환자들에 대하여 느끼는 바가 많았으며 고혈압, 당뇨, 중풍, 축농증, 소아알러지, 신장질환, 부인병, 간질환 등 많은 환자들을 치료하였으며 이미 입상에 치료력이 탁월한 처방을 개발하여 환제나 탕제로 만들어 전국의 인연있는 불자님께 보급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께서도 인연없는 중생을 제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여러 질환이나 각종난치성 질환으로 고생해온 불자님께는 그간의 고통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으시겠지만 편안한 마음으로 꼭 한번 래원하시거나 전화주시면 친절히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부처님의 바른 가르침으로 몸과 마음이 건강하게 될 수 있기를 기원하며 지면상 자세하게 설명 드리지 못한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나마 글을 올립니다.

경기 오산시 원동

TEL. (031)376-2748 / H.P. 011-9104-0037
약수암 포교원 원장 석지장 합장

Advertisement for '명당옥혈방' (Myeongdangokhyeobang) featuring a diagram of a human body and text describing its benefits for various ailments. Text includes: '평당을 만들어 주면 몸이 바뀝니다 명당옥혈방', '본인, 가정집, 점포, 사무실 처방을 해보십시오.', '불가피하면 좋은 운으로 바뀝니다.', '계수없는 일들과 불화와 액운이 사라지고 새로운 운으로 바뀝니다.', '새로운 운이 열리며 새로운 좋은 일이 있게 되고 새로운 관운, 명예, 재물이 옵니다.', '이것이 처방이다 명당옥혈방 051)865-9933', '전도제 49재와 결집법 전회주신면 안내 제자를 보내드립니다.', '처방전용 명당옥혈방은 각 사찰, 암자, 칠환관에만 있습니다.', '복덩어리 복덩어리 황금덩어리 복기막인 복이들어와 황금운으로 변합니다.'